



2026 VISION

흔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너무 슬퍼서 눈물이 계속 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마리아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서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마리아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예요!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속상할 때, 무서울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세요!”라고 말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래요!

함께 외쳐 볼까요? 예수님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래요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